

2024 최종합격 수기

■ 제목: 특별할 거 없는 하루하루가 합격을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전업 수험생#직장인#독학#인터넷 강의#성실성#단원화#전업 수험생#직장인#독학#인터넷 강의#성실성#단원화

■ 하루 학습 계획 및 생활 패턴

직장병행(1년3개월) 새벽 4시 기상 후 바로 샤워하고 잠 깬 상태로 07시까지 공부, 퇴근 후에 19시부터 22시까지 공부한 다음 바로 잠들었습니다. (이 패턴은 평일 기준 주3회 정도 했고, 주1회는 안 지켜졌고, 주1회는 공부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뭐 합격 수기에서 하루 몇 시간 공부했다~는 평균적인 경향성이나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인 것이지,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하루 10시간 이상 매일 공부하는 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럼프 왔을 때는 공부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컨디션 좋을 땐 늘기도 하면서 평균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주말에는 6시 기상해서 운동한 다음 바로 스터디카페가서 10~12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전업 수험생일 때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운동 1시간하고, 스터디카페에 8시에 도착한 다음 7~8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점심 시간은 1시간인데, 2~3시에 먹었고, 저녁은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먹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밥 먹는 게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는 거 같습니다.

■ 과목별 학습법 & 수강 강사 및 활용 교재

노동법: 에스더 노무사님 컴팩트하고 체계적인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문자를 따주시고, 자주 언급해주시는데 두문자를 듣는 것만으로 암기가 많이 되어서 암기할 때 편했습니다. 두문자를 따고, 자주 말해주는 강사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개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 반복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인사관리: 최중락 박사님 인사 점수가 좋지 않아서 수기를 적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쟁송법: 윤OO 변호사님 사례집이 정말 좋고, 역시 두문자를 잘 따고, 자주 언급 해주셔서 암기가 편했습니다. 사례풀이에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멍하니 개념만 본다고 실력이 늘지 않는 거 같아요 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시험에 안 나온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스킵해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1타강사

입장에서는 정말 리스크가 높아서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텐데, 수험생 위해 양 줄여주신 게 좋았습니다. 역시 사례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고, 논리적으로 사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민소는 행정보다 1.5배 어렵고 양은 체계화를 못 하면 행정의 2.5배, 잘하면 1.5배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정말 재밌다, 행정하고 잘 맞는다, 행정이 쉽다, 경조하기 너무 싫은데 노경은 더 싫다 하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면접 준비 과정

에스더 선생님의 조문특강이 정말 많이 도움 됐습니다. 2차 합격하면 2차 합격자 거의 대부분이 아~ 공부하기 너무 싫어 이런 상태가 돼서 3차 면접 전에 노동법 1회독 하고 들어가는 것도 정말 힘든데, 조문특강 들어서 많이 극복되었습니다. 에스더 선생님 조문특강 듣는 것을 강추합니다! 그리고 면접은 항상 300명 중에 어쩌다 1명이 불합격하는데(올해는 결시인원 1명이 불합격했습니다) 면접관님 질문에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면접관님과 싸우지 않는다면 99.9999999% 합격한다고 보면 됩니다. 2차 시험을 합격하면 3차 면접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차 합격자끼리 면접스터디 하는 경우도 있던데 스터디는 잠깐 하고 술만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 수험생활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직장병행 수험생들은 많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직장병행을 하면 '인생이 삭제되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다가 퇴근하면 또 공부하다가 일찍 자고 다시 아침 일찍 공부하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인간관계, 취미생활을 전부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 인생이 삭제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 살에 직병으로 수험을 시작했는데, 휴직, 퇴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계속 직병으로 공부를 해서 4 년만에 합격했다고 가정하면, 취업해서 인생 가장 소중한 젊은 시절 4 년을 전부 다 쓰고 34 살 노무사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노무사라는 직업이 자신의 마지막으로 젊은 한 때를 모두 삭제시켜도 좋을 정도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인지 스스로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월요일~일요일 중 주 3~4 회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시면서 '누워서 유튜브 보거나 스마트폰보면서 허비할 시간'만을 공부에 쏟는다는 느낌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합격은 빨리 하고 싶은데, 인생이 삭제되는 기분은 너무 싫어서 퇴사하고 수험공부를 했습니다. 저 같은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 차는 직병, 2 차는 때려치고 전업 / 만약에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 다시 1 차는 직병, 2 차는 때려치고 전업 / 만약에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을 반복하려고 했습니다.

■ 합격으로 이끈 나만의 학습 전략 KEY POINT

단권화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단권화가 정말 중요하고, 시험 전날 1회독 하는 것이 정말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줄 하나, 형광펜, 동그라미or네모 친 것들이 인지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밑줄 하나 표시 하나 생각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책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책에 표시를 해야하는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학습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반드시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차 시험장에서 노동법1 시험지를 받으면 지문이 매우 길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문제해결을 위해 단서를 모으는 실전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모의고사에 무조건 응시하시고,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모의고사는 무조건 응시하셔서 목차,키워드 기억나는 것들, 사안의 적용까지라도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노동법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습니다.